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2022년 2월 3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2.2.(수)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2. 1. 28.(금)	담당부서	미주통상과 통상법무기획과
담당과장	박성준 과장(044-203-5650) 전동욱 과장(044-203-4870)	담 당 자	이듀정 사무관(044-203-5651) 장영빈 사무관(044-203-4871)

통상교섭본부장, 美 주요 주지사 및 상·하원의원 대상 아웃리치 전개

- 철강 232조 개선 촉구, 우리 투자 기업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 당부 -

□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5(화)~2.2(수)(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미 주요 주지사 및 상·하원 의원들과 면담**하며 **철강 232조 조치 개선을 촉구**하고, **우리 투자 기업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을 당부하는 등 전방위 활동을 펼침

□ 1.28(금)~1.30(일) 동안 워싱턴 D.C.에서는 50개 주의 주지사들이 정기적으로 회합하는 **전미주지사협회**(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NGA)가 2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었음

○ 여 본부장은 전미주지사협회(NGA)에 참석하여 우리 투자 기업들이 진출한 **11개 주의 주지사*와 면담**하고, **철강 232조 조치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미국에 진출한 우리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당부함

* 미시간, 메릴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콜로라도, 캔자스, 네바다, 위스콘신, 오레곤, 뉴멕시코, 아칸소 등

○ 특히, 최근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미시간 주의 그레천 휘트머(Gretchen Whitmer) 주지사**와 면담하여,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품목 분야**에서 우리 기업과 미시간주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바, 이를 바탕으로 한 **공급망 협력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함

* 미시간州에 LG에너지솔루션(전기차 배터리(GM합작)), SK실트론(웨이퍼), 한국타이어, 현대모비스 등 우리 기업 진출(또는 예정)

○ 아울러, '한국 사위'로도 알려진 **래리 호건**(Larry Hogan) **메릴랜드 주지사**와의 면담에서는 메릴랜드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노바백스社의 코로나19 백신**이 **한국과의 파트너십 하에 생산**되고 있는바, 한국 정부의 **글로벌 백신 허브 전략 실행**을 위한 협력 등 **바이오제약 분야**에서 **우리 기업과 메릴랜드주의 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함

* 메릴랜드州에 대웅제약, 티슈진, 마크로젠 등의 바이오산업 관련 우리 기업 다수 진출

○ 이 밖에도 NGA 의장인 **에이사 허친슨**(Asa Hutchinson) **아칸소 주지사, 헨리 맥마스터**(Henry McMaster)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로이 쿠퍼**(Roy Cooper)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등과 만나 **우리 기업의 현지 경제에 대한 기여**를 평가하고, 추후에도 **우리 기업의 투자 및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함

* 사우스캐롤라이나州에 삼성전자, 일진USA, KISWIRE 등의 우리 기업 진출
노스캐롤라이나州에 두산밥캣, LS산전 등의 우리 기업 진출

□ 또한, 여 본부장은 1.31(월)~2.1(화) 동안 美 **의회에서 통상정책 권한을 갖고 있는 상원 재무위와 하원 세입위**의 위원장, 간사 등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주요 인사***를 포함한 **상·하원 의원 14여명**과도 면담함

* 론 와이든(Ron Wyden) 상원 재무위원장, 척 그레슬리(Chuck Grassley) 상원 재무위 간사, 마이크 크레이포(Mike Crapo) 상원 재무위 랭킹멤버, 수잔 델베네(Suzan Delbene) 하원 재무위 부위원장/민주당 디지털코커스 의장, 케빈 브래디(Kevin Brady) 하원 세입위 간사, 아드리안 스미스(Adrian Smith) 하원 세입위 무역소위 간사 등

○ 작년 12월에 미 상무부와 USTR에 **철강 232조 조치를 반대하는 서한을 송부**한 **신민주연합**(New Democratic Coalition, NDC)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철강 232조 조치 개선을 위해 **의회 차원의 협력**을 촉구하며, **미국이 최근 국내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는 만큼** 고품질의 **한국산 철강의 美 철강시장 접근 개선이 미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 론 카인드(Ron Kind), 수잔 델베네(Suzan Delbene), 데릭 킬머(Derek Kilmer), 돈 바이어(Don Beyer), 지미 파네타(Jimmy Panetta), 스테파니 머피(Stephanie Murphy) 등

** 미 바이든 대통령은 '21.11.16일 1조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법안' 서명

【 신민주연합(New Democatic Coalition) 】

- **(구성)** 하원 민주당 의원 95명으로 구성, 민주당 내 3번째로 큰 코커스('97년 발족)
- **(목적)** 자유무역과 경제성장에 집중하며 통상정책에 활발히 참여, 내부에 통상 TF도 운영
- **(주요활동)** △(한미 FTA) 한국과의 시장개방이 필요하다는 다수의 서한 송부하며 한미 FTA 적극 추진 지지, △(철강232조) 美상무장관 및 USTR 대표 앞 철강 232조 개선을 촉구하는 서한 송부('21.12)

○ 현재 의회에서 논의중인 CHIPS Act*, FABS Act** 등 투자 인센티브 법안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과 혜택**을 당부하였음

* (내용)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 첨단 반도체 R&D 지원 등, (현황) 미 혁신경쟁법(USCIA)에 포함되어 상원 통과, 하원 심의중

** (내용) 반도체 제조 관련 최대 25% 투자 세액공제 등, (현황) 1.75조불 예산조정법안(Build Back Better Act)에 일부 포함되어 하원 통과, 상원 심의중

○ 또한 여 본부장은 최근 미국이 **아태 지역 내 통상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며, 한국도 **무역과 통상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룬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산업·기술·디지털 역량을 활용하여 **역내 협력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함

□ **여 본부장의 이번 워싱턴 D.C 출장은 아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

※ 금번 출장에서 USTR, 백악관, 주지사(11명), 상·하원 의원(14명) 등 행정부, 정·재계, 싱크탱크, 업계 등 인사들과 총 50여회의 면담 진행 (상세명단 별첨)

❶ 미 정부 · 의원 · 업계 대상으로 민관합동 철강 232조 아웃리치

○ 여 본부장은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USTR 대표, 커트 캠벨(Kurt Campbell) NSC 조정관, 제니퍼 해리스(Jennifer Harris) NEC 선임국장 등 행정부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철강 232조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전달하면서 한국과의 개선협상을 촉구**함

○ 또한, 상·하원, 주지사 등 美 정계인사와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 등 美 경제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산 철강을 통한 미국 인프라 재건 등 기여,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을 위해서는 **한국산 철강의 美 철강수입시장 접근 개선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설명함

* 국내 기업이 투자한 알라바마·테네시州 상·하원, 미시간·노스캐롤라이나·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등

- 여 본부장은 미국이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정책 등을 추진하며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는 만큼, **한국 철강 업계와의 협력**은 양측에 **상호호혜적**이라며 철강 232 협상개시에 대한 美 **정·재계 인사들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

○ **한국 철강업계**도 금번 방미 기간 동안 의원실, 경제단체, 싱크탱크를 대상으로 **미국 내 한국 철강에 대한 우호적 여론 조성에 주력하면서 민관합동으로 철강 232 협상 개시 필요성을 적극 전파**하였음

❷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구상 관련 협의 지속

○ 미측은 **개방적이고 상호연결되어 있으며 안정적인 인태 지역**을 위해 지난 10월 발표한 **IPEF 구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는 작업 중**에 있다고 하며, 이를 통해 **인태 지역의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힘

○ 여 본부장은 **미측의 IPEF 구체화 과정**에서 **미측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하며, 한미 정상회담('21.5월) 이후 **반도체, 청정에너지, 공급망, 백신** 등 여러 분야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는 **한미간 통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역내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특히 한국은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태 지역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新 통상이슈**로 부각되는 **그린 전환**과 **디지털 전환**에 앞장서기 위한 **한국형 뉴딜 전략**도 추진 중인 점을 강조했으며,

- IPEF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원칙에 따라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역내 다수 국가가 수용 가능한 기준과 협력**을 포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윌리엄 레인쉬(William Reinsch) 등 美 통상 전문가들은 한국이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DPA, '21.12 타결),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22.1 가입협상 개시) **WTO 전자상거래 협상** 등 **양·다자 디지털 논의**에 적극 참여 중인 점을 높이 평가하고, **역내 디지털 분야 협력**에 **한국의 기여가 클 것**이라고 전망함

❸ 미 현지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 당부

○ 최근 미국의 활발한 지원정책 등에 힘입어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미 의회에서도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 법안** 등이 논의중인바, 여 본부장은 **주요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함

○ 특히, 여 본부장은 **반도체 및 배터리 등 공급망 핵심품목**에서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한미 양국의 공급망 파트너십을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

❹ 한미 FTA 10주년 계기 신통상 협의채널 가동 등 양자 협력관계 강화

○ 발효 10주년을 앞둔 한미 FTA('12.3.15 발효)는 **양국간 통상관계와 경제협력의 핵심 기반**으로, 특히 코로나19로 세계 무역이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 무역관계를 유지하는 버팀목**이 되었음

○ 여 본부장은 USTR, 의원, 주지사들과의 면담에서 지난 10년간 한미 FTA를 통해 **통상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강화**된 것을 평가하며, **향후 10년간 한미 통상 파트너십의 미래지향적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 美 주요 인사들도 **코로나19, 기후변화 등**으로 **통상의 영역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한미 FTA 10주년이 양국 협력관계를 되돌아보고 **보다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데 공감

○ 양측은 지난 11월에 개최된 한미 FTA 공동위에서 합의한 **실장급 신통상 협의채널 구축**을 통해 **공급망, 기후변화, 디지털**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함

○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를 포함한 美 싱크탱크들은 최근의 공급망 교란과 같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파트너인 한국과 미국**이 **양국의 제조기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포괄적 공급망·기술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❺ 태평양동맹(PA), 에콰도르 등 중남미 5개국과 FTA 네트워크 확대 추진

□ 한편, 출장 기간인 1.25일 현지에서 **한-태평양동맹(PA) 통상장관회담, 한-에콰도르 통상장관회담**을 화상으로 개최함

○ 여 본부장은 **한-PA 통상장관회담**에서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조속히 개시**해달라고 요청했으며, 1.26일 개최된 **PA 정상회의 선언문**에 "기 합의된 협상세칙(TOR)에 기반해 **2022년 상반기 내 대한민국과 준회원국 가입 협상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다"고 반영됨

*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 2012년 멕시코·칠레·페루·콜롬비아 등 4개국이 결성한 지역연합

○ **한-에콰도르 통상장관회담**에서는 에콰도르측이 2016년 중단된 **한-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협정(SECA)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혀왔으며, 양측은 **협상 재개방안을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함

< 미국 출장 계기 주요 면담 및 기관 >

대상		면담자 / 기관	특이 사항
주정부		헨리 맥마스터(Henry McMaster)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래리 호건(Larry Hogan) 메릴랜드 주지사	
		그레천 휘트머(Gretchen Whitmer) 미시간 주지사	
		로이 쿠퍼(Roy Cooper)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에이사 허친슨(Asa Hutchinson) 아칸소 주지사	
		자레드 폴리스(Jared Polis) 콜로라도 주지사	
		로라 켈리(Laura Kelly) 캔자스 주지사	
		스티브 시솔랙(Steve SisolaK) 네바다 주지사	
		토니 에버스(Tony Evers) 위스콘신 주지사	
		케이트 브라운(Kate Brown) 오레곤 주지사	
		미셸 루한 그리샴(Michelle Lujan Grisham) 뉴멕시코 주지사	
의회	상원	론 와이든(Ron Wyden) 상원의원(D-OR)	재무위원장
		척 그레슬리(Chuck Grassley) 상원의원(R-IA)	재무위 간사
		마이크 크레이포(Mike Crapo) 상원의원(R-ID)	재무위 랭킹멤버
		토미 튜버빌(Tommy Tuberville) 상원의원(R-AL)	앨라배마州 다수의 한국기업 진출
		마샤 블랙번(Marsha Blackburn) 상원의원(R-TN)	테네시州 다수의 한국기업 진출
	하원	케빈 브래디(Kevin Brady) 하원의원(R-TX)	세입위 간사
		아드리안 스미스(Adrian Smith) 하원의원(R-NE)	세입위 무역소위 간사
		수잔 델베네(Suzan Delbene) 하원의원(D-WA)	재무위 부위원장, NDC 의장
		론 카인드(Ron Kind) 하원의원(D-WI)	철강232조 반대서한
		스테파니 머피(Stephanie Murphy) 하원의원(D-FL)	철강232조 반대서한
		재키 왈로스키(Jackie Walorski) 하원의원(R-ID)	철강 232조 폐지 주장
		데릭 킬머(Derek Kilmer) 하원의원(D-WA)	NDC 명예의장
		돈 바이어(Don Beyer) 하원의원(D-VA)	공동경제위원회 의장
		지미 파네타(Jimmy Panetta) 하원의원(D-CA)	원내수석부총무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	美 보수주의 가치 대변, 정책결정에 큰 영향력 행사
		피터슨 국제경제정책연구소(PIIE)	통상, 국제금융 분야 전문 싱크탱크
		아시아 소사이어티(Asia Society)	통상전문가들 간담회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IPEF 추진방향 제안보고서 발간(1.26)
		미국외교정책협의회(NCAFP)	美학계·재계 및 정부 전문가 참여
		유라시아그룹(Eurasia Group)	정치경제 리스크 컨설팅
업계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	개방적·규범기반 국제무역체제 지지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	美 주요 기업 CEO 협회
기타		언론, 통상전문가 등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 이듀정 사무관(☎044-203-5651), 통상법무기획과 장영빈 사무관(☎044-203-487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